

# ‘끈기의 사나이’ 이덕희 “챌린저 투어 출전 행복하다”

ATP 광주오픈 챌린저 예선 와일드카드 획득 32강서 라잘에 0-2 패 테니스 복식 16강 출전



이덕희(세종시청)가 1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쇼 코트에서 열린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32강전에서 마크 라잘(에스토니아)을 상대로 포핸드 스트로크를 시도하고 있다.

‘정각장애 테니스스타’ 이덕희(세종시청·ATP 단식 랭킹 625위)가 올해 첫 ATP(프로테니스협회) 챌린저 투어 단식 출전을 본선 진출에 만족해야 했다.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예선 1회전과 2회전에서 팬들에게 접전 끝 승리를 선사했지만 32강에서 석패하며 복식 출전에 집중하게 됐다.

이덕희는 16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쇼 코트에서 열린 광주오픈 32강에서 마크 라잘(Mark Lajal·에스토니아·208위)에 0-2(1-6, 1-6)로 졌다. 더블폴트는 4-4로 팽팽했지만 서브에이스에서 0-6으로 크게 고전했다.

예선 1회전과 2회전을 연파했으나 32강에서 단식을 마감한 이덕희는 복식 16강에서 지에 쿠이(중국)와 호흡을 맞춰 알렉스 볼트(Alex Bolt)-루크 사빌(Luke Saville·이상 호주)조와 맞붙는다.

이덕희는 대회 공식 인터뷰를 통해 “ATP 단식 랭킹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오랜만에 챌린저 투어를 뛰게 됐다”며 “광주오픈에서 와일드카드로 기회

를 주셔서 감사하다. 부상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그에게는 이번 광주오픈이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 2018년 대회까지 3연속 8강 진출의 성과를 이뤘다. 또 지난해 서울 오픈과 부산오픈에 출전했지만 광주오픈에는 나서지 못했다. 당시 광주에 내려와 대체 선수 참가를 노렸지만 끝내 참가하

지 못한 채 부산으로 향해야 했다.

이덕희는 “지난달 ITF(국제테니스연맹) M15 니시-도쿄에서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준우승을 했다”며 “이번 대회는 부상 없이 준결승을 넘어 결승까지도 오르고 싶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데플림픽(정각장애 올림픽) 출전도 준비하고 있

다. 선전적으로 갖고 있던 정각장애를 이겨낸 그는 지난해 양측 발목 부상을 입고 복귀했고, 올해는 정상 궤도에 오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덕희는 “지난해 그리스에서 열린 데플 테니스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우승하면서 데플림픽 출전권을 따냈다”며 “항상 비장애인들과 경기를 뛰다 보니 나와

같이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경험해 보고 싶었다. 테니스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데플림픽 준비와 함께 ITF 월드 테니스 투어와 ATP 챌린저 투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랭킹 포인트를 차근차근 적립해 챌린저 투어에 안정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덕희는 “코로나 팬데믹과 부상 여파로 ATP 단식 랭킹이 600위권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200위권으로 진입해서 챌린저 투어에 자주 뛰면서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길게 이어가고 싶다. 최종적으로는 100위권 진입이 목표다”고 다짐했다.

정각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남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비장애인들과 경쟁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다.

이덕희는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기는 당연히 어렵다. 인아웃도 심판들이 말 대신 시그널을 해줘야 하고 어필도 손짓 발짓으로 한다”면서도 “나는 보청기를 꺼야 공 소리가 들리고 수화를 배우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비장애인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그 이상의 노력을 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하고 싶은 일에 꼭 도전하러”고 강조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 전남도체육대회 영광서 오늘 팡파르

7300여명 참가 나흘간 열린 육상·축구·배구 등 24개 종목

전남도민의 체육 한마당 잔치인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가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영광군에서 열린다.

‘뛰어라! 위대한 영광, 열려라! 희망찬 전남’이라는 구호 아래 영광 28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7314명(임원2674·선수 464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선수단은 육상, 축구, 배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족구), 1개 전시종목(게이트볼) 등 총 24개의 종목에서 각 시·군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이색선수 출전도 눈에 띈다.

보성군 자전거의 전승기 가족 선수 4명과 고흥군 탁구의 최현석·김미경 등 15쌍의 부부 선수, 광양시 수영의 설수정·설지선 등 3쌍의 쌍둥이를 비롯해 형제·자매·남매·부자·부녀·모자·모녀 등 가족관계 총 33팀이 출전해 기량을 펼친다.

또 광양시 육상 마라톤 선수로 참가하는 김동욱(58)씨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3회 연속 전남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최장기간 출전선수’로 명함을 내밀었다.

나주시 소프트테니스 김재근씨는 89세 나이로 이번 대회 최고령으로 참가해 노력장을 과시하고, 목포시 복싱 박성연은 만 17세로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전·현직 국가대표들도 참가한다.

전 불링 국가대표 최복음과 백종운(이상 광양시),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위진



아(여수시), 현 불링 국가대표 백성민(광양시), 불링 국가대표 상비군 김현미(곡성군), 수구 국가대표 설지선(광양시), 당구 김행직(진도군)·서서아(담양군), 여자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 육상 정일우(여수시) 등도 실력 발휘에 나선다.

지난 2009년 제48회 대회 개최 이후 15년만에 개최하는 영광군은 ‘성공·행복 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전’, ‘화합·희망체전’을 목표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영광군은 이번 대회를 위해 영광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를 마쳤고,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영광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 숙박업, 음식점업 등도 정비했다.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군 홍보존, 부대행사존, 스포츠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개회식은 시·군별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환영사, 기념사, 대회기 게양, 개회사, 축사, 체육인헌장 낭독, 선수선서, 태권무지컬 공연,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성화점화 최종 주자로는 영광이 고향인 은희선 전 서울 삼성 썬더스 감독이 나서며, 개회식 후에는 다이나믹듀오, 다비치, 육중환 밴드, 요요미, 반가희 등 인기 가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최동환 기자

##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H리그 여자부 7위 확정

인천시청에 23-24 패... 2연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인천시청에 패배하며 2023~2024 핸드볼 H리그 정규리그 7위를 확정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5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여섯 번째 경기에서 인천시청에 23-24로 졌다.

2연패를 당한 광주도시공사는 6승 1무 13패, 승점 13점으로 을 기록하면서 남은 한 경기 승패와 관계없이 7위를 확정했다. 광주도시공사가 오는 20일 부산시설공단과의 최종전서 이기고 6위 인천시청(6승 3무 11패·승점 15)이 서울시청에 지더라도 다득점에서 밀린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전반 초반 인천 골키퍼 이가은의 선방과 실책으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뼈아픈 1점 차 패배를 당했다.

0-3으로 뒤진 광주도시공사는 전반 5분께 서아루의 7m 던지기 슈트로 첫 득점을 따냈다. 하지만 패스 미스에 라인 크로스, 공격자 반칙 등을 연거푸 허용하며 1-6으로 밀렸다. 광주도시공사는 이후에도



광주도시공사 김지현(왼쪽)이 지난 15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3라운드 인천시청과의 경기에서 슈트를 던지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패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좀처럼 추격하지 못했다. 전반 20분 이후 김지현과 김수민의 득점포가 살아나면서 6-9로 쫓아갔고, 9-11로 전반을 마쳤다.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초반 김금정의 골로 10-11, 한 점 차로 따라붙은 뒤 1-2점 차로 추격했지만 후반 10분 이후 실책으로 흐름을 뺏기면서 4점 차로 벌어졌다. 이후 김지현과 서아루를 활용한 공격 전개로 추격전을 펼치면서 후반 24분께 20

-21, 한 점 차로 쫓아갔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한편 지난 시즌까지 광주도시공사에서 뛰었던 골키퍼 손민지의 은퇴식이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됐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유석우 광주핸드볼협회장,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손민지의 활약을 그린 그림 액자와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도 박수를 보내며 그의 은퇴를 축하했다.

최동환 기자

## JK풋볼클럽, 내달 전국소년체전 광주시 대표로 출전

광주지역 유소년 축구 명문클럽인 JK 풋볼클럽 U12선수단이 전국 최강자 자리에 도전한다.

16일 광주시축구협회에 따르면 JK 풋볼클럽은 다음달 전남에서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시 대표로 출전

한다.

광주 대표팀 선발전 1차전 우승팀인 JK풋볼클럽은 지난달 광주 보라매축구장에서 열린 2차전 우승팀인 광주신화유소년축구단과 3차 결승전에서 2-0으로 이기고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JK풋볼클럽은 전반 초반부터 강하게 공세를 취하며 선제골에 성공했다. 정태준(문우초 6)이 김모아(삼각초 6)의 코너킥을 헤딩슛으로 상대 골망을 갈랐다. 이후 공방을 오갔지만 득실점 없이 이어지다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정태준의 썬기골로 JK풋볼클럽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최동환 기자